

보도일자	배포 즉시 보도
담당자	마케팅팀 김경아 팀장 02-580-5756 kyungah.kim@avl.com

한국 AVL, 창원대학교와 미래 자동차 개발 및 연구를 위한 MOU



한국 AVL(AVL Korea, 대표이사 김진형)은 4 월 24 일(금) 창원대학교 산학협동관에서 미래 자동차 개발 및 연구를 위하여 창원대학교(총장 이호영)와 산학협력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.

이날 업무 협약식에는 한국 AVL(대표이사 김진형), Advanced Simulation Technologies(총괄부서장 손민혁)와 창원대학교 산학협력단(단장 이재현), LINC+사업단(단장 박경훈), 전기전자제어공학부(교수 이우택) 등 양 기관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였다.

이번 협약은 상호 발전을 위한 업무 협력의 필요성을 토대로 향후 ▲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와 자동차 전동화 관련 AVL 의 UPP(university Partnership Program) 운영 ▲우수 인력개발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및 컨설팅 ▲산학협력에 의한 공동 연구기반 조성 및 공동 실행 ▲현장실습, 인턴십 등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적 교류 협력, 그리고 ▲기타 미래 자동차 개발 및 연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상호 지원할 예정이다.

창원대학교 이재현 산학협력단장은 “창원대학교 산학협력 집합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창원대 창업벤처타운에 입주하여, 우리대학의 실시간 제어 실험실과 함께 미래자동차 분야 기술개발을 진행할 예정이며, 기계부품 가공업에서 첨단 메카트로닉스 부품 업체로 사업분야를 확장할 계획이 있는 우리 지역 기업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. 특히 이번 MOU 체결을 통해 LINC+사업단에서 추진하는 산학협력의 전방위적인 지원사업 참여를 통해 유기적인 산학 클러스터의 한 축이 될 것이다.” 라고 밝혔다.

또한 한국 AVL 김진형 대표는 “창원대학교의 자동차 전동화와 관련한 부품 및 소프트웨어 연구활동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한다. 또한 나아가서는 창원대학교와 더불어 경남에 있는 관련 부품기업들과 정부산하연구기관과 함께 유기적인 산학연 클러스터의 한 축이 되어 경남 자동차산업 발전에 함께 공헌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좋은 파트너십 사례가 되길 기대한다.” 라고 화답했다.



한국 AVL 의 본사인 AVL List GmbH 는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연구개발 용역 제공 뿐 만 아니라 엔진/모터 동력계 및 연소 해석기 등 모든 유형의 파워트레인 개발 및 개선을 위한 각종 장비와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를 생산하고 있다. 오스트리아 제 2 의 도시인 Graz 에 위치하고 있으며, 1948 년 창업자인 Prof. Hans List 에 의하여 엔진 연구, 설계 및 개발 회사로 출발하여 현재 전 세계 45 개 지사에 11,500 여명의 종업원이 근무하고 연간 매출액 19.7 억 유로(2019 년)이상의 회사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. 자세한 내용은 www.avl.com 에서 확인할 수 있다.